

참회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자꾸 장애물이 생기게 되지요. '참(懺)'은 스스로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悔)'는 자기 고백입니다.



불교사 주자·회주 성타 스님

제858호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음력 9월 23일 · 불기 2555년 · 주년)

원칙 없는 정부탓에 佛心은 남북 없이 흔들린다

조계종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남북 승인에 대해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10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됐던 남북 승인 과정에 대한 류우의 통일부 장관의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민간교류의 전면 허용 등을 촉구했다.

민추본은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교도합동법회를 위해 통일부에 남북 승인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승인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차 확인하며 항의의 뜻을 전하자 오후 5시 30분 경 태도를 바꿔 남북을 최종 승인했다. 통일부 최종 승인에 따라 민추본은 13일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해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북 불자들은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기원했다. 그러나 민추본은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신뢰가 훼손된 남북 불교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추본은 "조계종과 조불련이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남북교류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민추본은 승인 번복 사유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들의 금강산 철수 사태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민추본 관계자는 "통일부가 금강산에서 남북 직원들이 철수된 상황에서 국민을 북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북한을 비판할 예정에 있어 남북을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추본은 8월 24일에도 하루 전에 남북 승인을 거절당했다. 당시 민추본은 5월 경 지원했던 구중재가 취약 계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남북 승인을 요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31일에는 이번 밀가루 100톤 지원과 관련해 북측 실무자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에도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남북을 불허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개인의 약속도 이렇게 번복하지 않는다. 북측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행정은 남북의 신뢰만 악화시킨다. 통일부의 이번 사태로 조불련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통일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은 "모니터링 차원의 남북은 정부의 요구 사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8월 경 구중재 지원을 확인하기 위한 민추본의 남북을 불허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태도는 정부가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추본은 정부가 일관된 통일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민추본, 장관 공개사과 요구
대북 신뢰도 추락 우려
승인제도 전면개정 요구

국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을 대상으로 오만한 행정을 일삼고 있어 불교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민추본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한 적은 없다. 남북 승인이란 것이 마지막까지 가짜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불허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통일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민추본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추본은 "통일부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언론을 통해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경위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2편**

박기범 기자 smle2@daum.net



내가 보낸 염소는 어디있다

불교·원불교·가톨릭으로 구성된 한국 여성수도자 모임 삼소회가 10월 5-11일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염소 한 마리의 희망'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는 삼소회가 올해 4월 직접 에티오피아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마련됐다. **관련 기사 2편**

글=이은정 기자 oasis1983@hanmail.net · 사진제공=삼소회

통일부, 남북 승인 오락가락
방북 하루전 돌연 불허
4시간 만에 다시 승인

통일부는 방북 하루 전인 12일 오후 1시 30분경 돌연 남북을 불허했다. 민추본의 방북이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된 것은 올해만 벌써 3번째다.

민추본은 통일부가 방북 불허 방침을 알려오자 실무진은 물론이고 사회국장 혜경 스님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했다. 불허 방침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통일부는 급기야 문서로 불허 통보를 보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민추본은 조선불교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에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조불련은 민추본이 3차례에 걸쳐 방북을 취소하자 "황당하다. 더 이상 조계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는 민추본이 불허 방침을

진흥원 새 이사장에 김규철 이사 추대

14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민병천 이사장의 타계로 공석이 된 대한불교진흥원의 신입 이사장에 김규철 이사(사직)가 추대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직무대행 배명인)은 10월 14일 마포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제142차 이사회회의를 열고, 제13대 이사장에 김규철 상임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

다. 신임 김규철 이사장의 임기는 선출일 10월 14일부터 2014년 8월 15일까지이다.

이날진흥원 이사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에 공헌하는 불교'를 실천해 나가는 진흥원이 되자는데 뜻을 모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이사장 및 이사 선출은 세대교체의 뜻이 담

겨 있다. 특히 시대의 진운과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임 김규철 이사장은 서울대 법과대 학부, 신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외교관 및 BBS 사장 등을 지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낙산사에서 한중일 불교지도자 만나다

중단협, 11월 1~2일
제14차 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 불교지도자들이 동북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을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연다.

대회는 1일 3국 교류위원회를 시작으로 환영만찬, 2일 오전 10시 낙산사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가 봉행된다. 법회에서는 3국 불교의 독특한 국가별 예불의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3국 불교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발표된다. 이어 양양 솔비치호텔 컨벤션홀에서는 '불교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개최된다.

행사는 주최 측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부회장 인공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중국불교협회 회장 전인 스님 등 중국 참가단 150여 명, 일중한국제 불교우호교류협의회 회장 정도중 문주(중정) 이포우 유이신(伊藤 唯眞) 스님 등 일본 참가단 150여 명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불교협회, 일본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3개국이 번갈아가며 열고 있다.

조동섭 기자



다시 듣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불교인재원, 11월 16일부터
석달간 총 11회 강좌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동안거 동안 총림 대중에 매일 설법했던 '백일법문'이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재현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염상호)이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강좌를 연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영원한 행복을 이룬 주제로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11월 16일부터 2012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의 증명법사인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중심으로 2600년 불교사를 한 줄로 꿰 최고의 불교교리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회비 15만 원. (02)735-2428

이은정 기자 soe84@naver.com

858호 CONTENTS

- 北 취약계층에 밀가루 지원 2
- 동방대학원대학 총장 무현의 장격·덕조 스님 총회의원 당선
-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3
- 인터뷰 6
- 108산사순례지도회 행사 스님
- 현장속으로 11
- 조계사 서울의 아름다운 길 걷기명상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신비한 빛을 내는 '옴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옴신묘장구대다라니 금장액자 특별보급!

사주는 전생의 업에따라 변하므로 현재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은 기도와 방편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옴신묘장구대다라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자영업, 부동산, 주식, 결혼, 승진, 조상, 우환, 부부, 시험, 건강

■ 액자 중앙의 푸른색 옴자는 어두운 밤 밝은 빛을 내어 가정의 나쁜 기운을 소멸합니다.
■ 옴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인연맺은 불자들은 법상스님께서 전화 인성 상담을 해드립니다.

▶보 시 가 : 24만원 6개월 (무이자) 월4만원
▶구입문의 : 삼중스님 기도도량 자비원 080-300-1080
▶입금계좌 :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 규격 : 40cmX40cm (보증서첨부)

▲ 옴신묘장구대다라니

삼중스님 기도도량 밀양자비원에서 불교 및 동양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삼중스님-금강경 경담스님-달마도법상스님-동양학 남재법사-성명학 남산스님-대체의학현달스님-기공학 문의 055-353-9925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774-5번지 (자비원)

옴신묘장구대다라니' 수익금은 삼중스님 불교학당 후학양성에 쓰여집니다.

특별 선물

- 경담스님 친필 기도달마도 1장
- 4인가족 이름 및 사주 무료감명
- 2012년 임진(壬辰年) 윤년달력1권